전국 사찰 불단 정밀조사된다

불교문화재硏 · 문화재청, 5년간 조사 진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단(佛壇)은 사찰 전각에서 불상을 올려두고 예불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일종의 받침대로 수미단(須彌壇)으로 불리운다.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문양으로 전각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눈길이 가는 사찰 목공예의 진수지만, 그동안은 전각의 구조물 중 하나로 여겨왔다. 그러다 보니 전각과 불상, 불화에 비해 불단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 같은 불단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3차 사업 대상으로 '불단'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5년간 전국 사찰의 불단들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불단은 건물 내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불상을 봉안(奉安)하고 의례에 필요한 다양한 공양기물(供養器物)을 차리기 위해 마련된 구조물이다.

불단은 불상의 봉안과 예배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제작 기술도 같이 발전해 왔으며, 당대의 우수한 장인(匠人)들이 시대상을 반영한 다양한 문양과 도상을 정교하게 조각하기 때문에 불교사 · 미술사 분야의 연구 자료로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더불어 목패(木牌), 소통(疎筒), 촛대와 같은 다양한 의식구들과 어우러져 우리 불교문화의 전통과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어 보존할 가치가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단은 건물의 부속물로 인식돼 불상, 불화 등과 같은 불교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 주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수리가 쉽지 않고 변형되기 쉬우며 화재, 충해, 습기 등 외부 환경에도 취약해 보존 · 복원을 위한 원형자료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그간 협력 · 진행해 온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3차 사업 대상으로 '불단'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5개년의 계획으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전라도 지역 16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정밀 실측과 2차원(2D) 디지털 촬영, 3차원 입체(3D) 스캐닝과 도면 작업 등을 통한 원형 디지털 기록화 작업을 하게 되며, 손상현황지도 · 수종(樹種)성분 분석 등 보존과학 조사와 안전도 점검 조사 등 과학 조사도 병행된다. 해당 불단의 역사 · 미술사 의미를 연구하는 인문학 조사도 종합적으로 시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보존할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불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불단은 영천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보물 제48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보물 제1859호) 2건뿐이다.



보물 제486호 은해사 백흥암 수미단.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불단 2점 중 하나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5년간 전국 사찰 불단들을 정밀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일환
올해 전라도 16개 사찰 대상
3D스캐닝 등 디지털 기록화
미술사적 의미 찾는 연구도
추후 문화재 지정 추진 계획

이번 조사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사찰 불단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불단에 조각된 다양한 문양과 도상(圖像)이 전통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제정 스님은 "사찰 전각과 불화, 불상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연구와 보존 등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불단은 그간 등한시 돼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사찰 100여 곳의 불단을 정밀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찰 불단의 불교미술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룡사 동회랑 외곽 고승 수행공간"

경주문화재硏 보고서 발간
6 · 8차 발굴조사 결과 수록
35년 만에 두 번째 보고서

담장 구획된 폐쇄적인 구성
공공시설보단 '수행처' 추정

경주 황룡사지 동회랑 동편지구 외곽지역이 당대 승려들의 수행 공간이었을 것이라는 발굴 ·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 회랑 외곽 발굴조사 내용을 담은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Ⅱ-동회랑 동편지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주 황룡사지 발굴조사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모두 8차에 걸쳐 조사됐으며 첫 보고서는 1984년 발간됐다. 당시에는 금당과 목탑, 강당, 종루, 경루 등 관련 유구와 유물을 소개했다.

35년 만에 발간된 두 번째 보고서는 6차(1981년)와 8차(1983년) 조사에서 본격적인 발굴이 이뤄졌던 동회랑 동편지구의 조사내용과 출토유물을 수록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구역은 동회랑 동편에 남북으로 길게 설치된 담장으로 구획된 공간으로, 면적은 약 4,300㎡이다. 이곳에서는 황룡사 전체사역의 외곽경계로 추정되는 남북담장이 확인됐고,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담장으로 구획된 7개의 독립된 공간도 드러났다.

또한, 이들 각각의 독립된 공간 내부에서는 1~3개소 정도의 건물지가 확인됐으며, 주변에서 기와 · 토기 등의 유물도 다량 발굴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485점의 유물을 선별 · 수록됐다.

동회랑 동편지구 구조와 성격에 대한 보고서의 연구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중국 당대 사찰에서 보이는 다원식(多院式) 가람구조와 황룡사지 가람구조를 비교 · 분석하고 동회랑 외곽이 공공시설보다는 당시 승려들의 독거 수행공간이나 의례 공간으로 추정했다.

이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신라 황룡사는 회랑 외곽과 강당 북편에는 다수의 크고 작은 건물이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회랑 동편지구는 담장으로 구획되는 정형의 공간 내부에 건물이 배치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는 중국의 '다원식 가람'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서는 동회랑 동편지구가 담장으로 구획돼 매우 폐쇄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이는 개방적인 공공 시설보다는 고승들이 수행을 위해 독거하는 공간이거나 중국 당대 사원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의례 공간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국내 최초 불교문헌 전문 영문저널 창간

동국대 불교학술원 〈EABL〉 첫 호 발간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불전번역학과(학과장 김종욱)는 최근 〈East Asian Buddhist Literature〉(이하 EABL) Vol.1을 창간했다. 〈EABL〉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문으로 발행되는 동아시아 불교 문헌 전문학술지다. 동국대 김종욱 교수와 일본 국제불교대학원대학교 오치아이 토시노리 교수가 공동 편집장을 맡았다.

〈EABL〉은 한국불교문헌을 포함한 동아시아 불교의 사본 및 간본 등을 새롭게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이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원문을 교감하고 영문으로 해제하여 공개한다.

국내 유일의 영문 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와 자매지 성격을 띠고 있는 EABL의 발간은 한국불교 연구의 국제화를 향한 불교학술원의 행보가 가속화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간호에 실린 네 편의 교정본은 돈황 사본에서 중국 소재 사본, 한국 소재 판본, 일본 사본에 이르는 문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문헌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창간호에는 〈유가사지론 1권〉, 〈금사론(金沙論)〉, 〈대방광불화엄경담현결택기 1, 2권〉 그리고 〈화엄종입교의〉가 실렸다. 노덕현 기자



백제 最古 환조 석불 '연동리 좌상' 대좌 정비

문화재청, 익산시 불단 정비
앞 · 옆면 강화유리 설치 예정

백제 불상 중 가장 오래된 환조 석불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5호)' 불단 정비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현존하는 백제 불상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석불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의 대좌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불단을 정비하고 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이 불상은 옷자락이 흘러내려 대좌를 덮고 있는 상현좌(裳懸座) 형식으로 매우 귀한 자료이나, 그동안은 불단이 대좌를 가리고 있어서 그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익산시의 핵심유적으로 손꼽히는 연동리 석조여래좌상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사라지고 없던 불두(佛頭)만 새로 만들었을 뿐, 불신(佛身) · 광배(光背) · 대좌(臺座)는 잘 남아있어 백제미술의 백미로 인정 받아왔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대좌를 가리고 있던 기존의 목재 불단 대신 앞면과 옆면에 강화유리를 설치하고 앞면에는 공양구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예불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불상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비는 백제미술 연구와 지역 문화유산 육성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불단 정비작업은 4월 안으로 마무리해 공개할 계획이며, 불상에 대한 실측조사는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있는 공주시와 부여군, 익산시와 함께 올해 총 644억원(국비 4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핵심유적들에 대한 연구 ·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5호)' 불단 정비를 진행한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